

 <b>외교부</b>		<h1>보도자료</h1>		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22-702		
배포일시	2022.09.05.(월)	담당부서	기후환경과학외교국		
담당자	한민영 /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(02-2100-7711)				

## 한국 - 캐나다 기후변화 양자대화 신설

### - 한-캐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기반 마련 -

-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캐서린 스튜어트(Catherine Stewart) 캐나다 기후변화대사와 9.5.(월) 외교부에서 면담을 갖고, “한-캐 기후변화 대화(Climate Change Dialogue)” 양자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.
  
- 양 대사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파국적이고 점차 심해지는 위협을 인정하고, 대응에 결정적 시기인 10년 동안 기후행동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.
  - 아울러 지구온도 상승 1.5도 이내 목표를 지키기 위해 파리협정 하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이행의 중요성 강조
  
- 양측은 양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파리협정하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양국간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-캐 기후변화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.
  - 제1차 한-캐 기후변화대화는 내년 개최 예정
  
- 양측은 동 협의체를 통해 ▲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공약, 정책, 파트너십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, ▲탄소가격제, 신재생에너지, 무공해 자동차, 청정기술 사용 등 국내적 조치 관련해서도 모범사례 및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양국 기후변화 외교의 대표인 양 대사는 금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7)에서 만나,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욕과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.

붙임 : 면담 사진. 끝.